지역구 사라진 황주홍·고향 빼앗긴 이정현 '울상'

광주·전남 선거구 어떻게 바뀌나

남구 5만5000명 동구 편입
이윤석·서삼석·박준영 빅매치
국민의당 현역의원 대결 불가피
수도권 10곳 늘고 지방 5곳 줄어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선 광주 동구와 남구가 합쳐져 동구남구 갑·을 선거구로 조정된다. 1석이 줄어든 전남에서는 황주홍 의원 지역구인 장흥·강진·영암이 쪼개져 인접한 인구 미달 선거구로 붙게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광주 전체 의석수(8석)는 19대 총선과 같지만, 동구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인구가 9만9000여명으로 인구 하한(14만명)에 못 미쳐 남구와 통합·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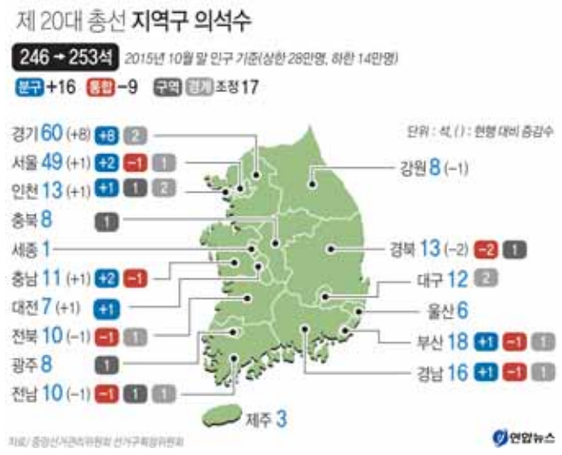
동남갑 선거구는 봉선 1·2동, 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등 기존 남구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동남을은 기존 동구 일원에 남구 양림동, 방림 1·2동, 사직동, 백운1·2동 등 6개동이 새로 편입된다. 동구에 편입되는 남구의 인구는 5만5000여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남구 출마자들은 동남갑에서, 동구 출마자들은 동남을을 선택할 공산이 커졌다.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남구와 동구 출마를 저울질 했던 무소속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동남갑에 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상한(28만명)을 넘은 광주 북구을(29만5000여명)은 오치 1·2동과 임동을 북구갑에 떼어줬다.

전체 의석수가 11석에서 10석으로 줄어든 전남에서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지역구인 장흥·강진·영암이 인구 하한 미달인 고흥·보성(11만3000여명), 무안·신안(12만5000여명)에 쪼개져 붙었다. 장흥·강진은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 지역구인 고흥·보성과, 영암은 더불어민주당 이윤석 의원 지역구인 무안·신안과 통합·조정됐다.

이에 따라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국민의당 현역 의원간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영암·무안·신안 역시 이윤석 의원이 정치적 맞수인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당내 경쟁하는데다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주영순 의원에 최근 고향(영암) 출마의사를 밝힌 박준영 민주당 공동대표까지 뛰어들어 빅매치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지역구인 순천·곡성도 인구가 31만명으로, 인구 상한을 초과해 순천을 독립 선거구로 두고, 곡성을 분리해 광양·구례와 합치는 획정안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자신의 고향 곡성이 아닌 순천을 선택할 방침이다. 곡성이 인구 3만여명에 불과, 고향에서 몰표를 받는다 해도 광양·구례와 합쳐지면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수에서도 갑·을 선거구에서 동간 경계 조정이 있었다. 기존 여수을 선거구였던 미평·만덕동을 여수갑 선거구로 포함시켰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중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는 서울 1곳·경기 8곳·인천 1곳 등 수도권에서 무려 10곳이 늘어나고 대전과 충남에서도 각각 1곳씩 증가했다. 반면 강원 1곳·전북 1곳·전남 1곳·경북 2곳 등 5곳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7개의 지역구가 증가하게 됐다.

획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수원, 남양주, 화성, 군포, 용인, 김포, 광주 등 7개 지역구에서 분구를 통해 의석이 늘었다. 또 양주·동두천, 포천·연천, 여주·양평·가평은 양주, 동두천·연천, 포천·가평, 여주·양평으로 분구와 조정을 통해 기존 3개 지역구가 4개로 1석 증가했다.

서울은 중구와 성동구갑, 성동구을의 3개 지역구를 중구성동구갑, 중구성동구을 로 변경해 1석 줄이는 대신 강남, 강서에서 각각 1개씩 2석 늘었고, 인천에서는 단일 지역구인 연수가 갑, 을 지역구로 2개가 됐다.

전북에서는 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까지 5개 지역을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로 변경해 1개 지역이 감소했다.

또 대전에서는 유성이 2개 지역으로,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에서 각각 1석씩 2석이 증가한 대신 공주시, 부여·청양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쳤다.

부산에서는 중·동구가 사라지는 대신 중·영도, 서·동구로 바뀌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28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 위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더민주 강기정 '자의적 배제' 논란

"적절한 절차 없어…" 컷오프 거센 후폭풍
현역들 불만, 김종인 비대위와 갈등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컷오프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당내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의적인 방식은 안된다'는 입장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선 이상 하위 50%, 재선 이하 하위 30%'에 대한 2차 컷오프를 앞두고 김종인 비대위와 현역 국회의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도부가 강기정 의원(북 갑)의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실상 공천 배제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단,

강 의원이 광주지역 더민주 의원들의 탈당 및 분당 사태 속에서도 사실상 홀로 고군분투하며 당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전격적인 공천 배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래도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의 3선 중진 의원인데 적절한 절차가 배제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김종인 대표와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에게는 전략공천 지역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전략공천 지역 결정은 전략공천위원회에서의 의결 절차를 거쳐 비대위의 인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3선 이상 중진 의원 50%에 대한 경쟁력 정밀 심사를 통해 전략공천 및 컷오프를 결정해도 된다는 점에서 강 의원의 공천 배제 배경에는 김종인 대표 등 당내 신주류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강 의원의 공천 배제는 정치적 인과응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이 정세균 전 대표 등 당내 주류 진영의 핵심으로 활동하면서 소위 '완장'을 찬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 내의 폭력 사태에 연루되는가 하면 각종 정치 현안을 두고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인심을 잃어 강 의원의 공천 배제는 이 같은 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8일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만든 공천혁신안과 관련, "정무적 판단이나 변화를 이끌기에는 제약적 요소가 많기에 그런 것에 대해 당무위의 의사를 들어보려 한다"고 말해 당헌당규 개정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2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탈락자 중 일부 구제를 비롯해 현 지도부의 공천 권한 확대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민주는 29일 광주·전남지역 4·13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 형태의 이른바 '슈퍼스타 K' 방식 공개 면접을 실시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대강당에서 실시되는 이날 공개면접은 당원이 방청할 수 있고 인터넷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커지는 컷오프 부담

천정배 "본선 경쟁력 갖춰야 공천" 전략공천 시사

국민의당이 다음 달 2일로 창당 한 달을 앞둔 가운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경쟁관계인 더민주와 비교해 어떤 공천 쇄신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28일 '희망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에서의 전략공천 가능성을 시사하고, 공천방식 등을 언급해 조만간 공천룰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천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양동에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만난 후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천 대표는 "광주 국민의당 후보들은 현역의원이든 아니든 민심에 기반을 둔 본선 경쟁력이 입증할 때야만 공천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개혁공천과 희망공천을 통해 인물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희망공천이라는 이름의 전략공천 규모와 가능 지역을 묻는 말에는 "전략공천 여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도부와 협의하게 돼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개혁공천과 희망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호남공천의 대원칙은 한국정치와 호남정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한다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생명을 걸고 확실히 지킬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표명 했다.

아직 발표 전인 국민의당 공천 시행 세칙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거의 마무리 됐다"며 "여론조사·당원투표·숙의선거인단·숙의배심원단 등 4가지 공천 방법 중 당원 투표는 신생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4가지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되, 특히 광주에서는 숙의배심원단을 지역구별로가 아닌 광주 전역으로 구성하는 제도적 방법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쟁관계인 더민주가 10명의 현역 의원을 '컷오프'한 데 이어 정밀심사를 통해 2차 물갈이 공천을 예고하고 있어 '새정치'를 내세워온 국민의당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으로선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고 공천 쇄신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총선 전 마지막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로 민심회복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장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당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인위적 물갈이는 '망나니짓'"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의 시선은 공천 '칼자루'를 쥔 전윤철 위원장에게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 후보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27일 공천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에 착수했으며, 공천 시행세칙 제정 작업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창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